

제도개선 성과 공유 · 활성화 전략 논의

중기중앙회, 제2차 협동조합활성화위원회 열어

중소기업중앙회가 협동조합 제도개선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활성화 전략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를 마련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3일 경기 성남시 한국전기공업협동조합에서 2025년 제2차 협동조합활성화위원회를 열고 협동조합 지원정책의 추진 경과와 향후 과제를 논의했다고 밝혔다.

협동조합활성화위원회는 협동조합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활성화 정책을 심의하는 공식 기구로, 2015년 출범 이후 업계의 핵심 논의체 역할을 맡아왔다. 이날 회의에는 재정목 한국프라스틱 공업협동조합연합회장을 위원장으로, 김방식 한국유기질비료산업협동조합 이사장, 문희봉 한국전기공업협동조합 이사장 등 12명의 위원이 참석해 현안을 폭넓게 다뤘다.

위원회는 이날 △협동조합 협의요청권 도입 △협동조합 설립요건 완화 등 최근 추진된 제도개선 성과를 보고받고 「제4차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3개년 계획」의 핵심 전략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을 이어갔다.

구체적으로 △시장 대응역량 강화 △급변하는 산업 환경에 대한 공동 대응 체계 구축 △수출경쟁력 제고 △지역경제 기반 확충 △협동조합 관련 제도의 지속적 정비 등이 주요 논의 대상에 올랐다.

회의 참석자들은 이어 한국전기공업협동조합의 현황을 둘러보고 기술개발, 인력양성, 판로지원 등 조합 운영의 실제 사례를 공유했다. 1962년 설립된 한국전기공업협동조합은 조합원사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공동사업을 꾸준히 추진해 왔으며, 지난해 중소기업



중소기업중앙회가 협동조합 제도개선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활성화 전략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를 마련했다

협동조합 공동판매 부문에서 대상을 수상한 바 있다.

재정목 위원장은 “개별 중소기업이 혼자서는 극복하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를 협동조합이 함께 해결할 수 있다”며 협동조합의 역할을 강조했다. 그는 또 “협의요청권 도입과 설립요

건 완화 등 법·제도 개선이 실효성을 갖고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힘을 보태겠다”며 “제4차 3개년 계획의 성공적 이행을 위해 위원회 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오상근 기자

국민연금공단, 10년째

‘사랑의김장 나눔’ 행사 진행

국민연금공단이 지난 2일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전기공업협동조합과 함께 전북지역 취약계층을 돕기 위한 ‘사랑의 김장 나눔’ 행사를 진행했다.

‘사랑의 김장 나눔’은 겨울철 저소득 취약계층의 식생활 안정에 기여하고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기 위해 매년 연말 실시되는 대표적 나눔 활동이다. 세 기관은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지역사회와의 상생 문화를 꾸준히 이어가고 있다.

특히 국민연금공단은 2016년부터 행사에 참여해 올해로 10년째 나눔의 전통을 이어가고 있다. 그동안 공단은 총 6천 세대에 35톤이 넘는 김장김치를 전달하며 지역사회 돌봄에 적극 동참해 왔다.

올해 행사는 주관 기관인 한국국토정보공사 잔디광장 앞 공터에서 열렸으며, 공공기관 임직원과 지역사회복지관 관계자 등 120여 명이 참여해 의미를 더했다. 봉사자들은 한겨울의 매서운 추위 속에서도 밝은 얼굴로 3,500kg의 김장김치를 정성껏 담가 전북지역 취약계층 650세대에 전달했다.

이여규 국민연금공단 북지사는 “임직원의 따뜻한 마음이 담긴 김장김치가 어려운 이웃들에게 겨울을 나아가는 작은 힘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이전 공공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해 지역사회 문제 해결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말했다. /오상근 기자

전북농협, ‘K-라이스페스타’ 서 전북쌀 명성 드높여

우리쌀 품평회서 대상·우수상 동시 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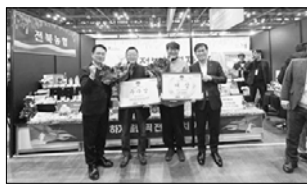
전북의 전통주가 국내 최대 규모의 우리쌀 축제에서 빛나는 성과를 거두며 전북쌀의 가치를 전국에 각인시켰다.

전북농협은 지난 11월 28일부터 30일까지 서울간 이천 킨텍스에서 열린 2025 우리쌀·우리술 K-라이스페스타에서 전북 지역 우리쌀 제품이 약·청주와 고도발효주 부문에서 각각 대상과 우수상을 수상했다고 30일 밝혔다.

올해 K-라이스페스타는 전국의 쌀 가공식품 업체와 전통주 제조·판매 업체 250여 곳이 참여한 가운데 개최된 국내 최대 규모의 우리쌀 산업 축

제다. 행사 첫날인 28일에는 강호동 농협중앙회장,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어기구 농해수위원장 등 주요 인사뿐 아니라 국회의원, 농업 관련 단체장 전국 농축협 조합장 등 2,000여 명이 참석해 시상식과 쌀 소비 촉진 퍼포먼스를 펼치며 분위기를 뜨겁게 달궜다.

농협은 이번 축제를 앞두고 지난 7월부터 11월까지 약 4개월간 대규모 품평회를 진행했다. 총 470개 업체가 780개 제품을 출품하며 역대 최고 경쟁률을 기록했으며, 최종 심사를 통해 7개 부문에서 28개 제품이 우수작으로



선정됐다.

전북은 특히 눈부신 성과를 거뒀다. 정음 한영석의 발효연구소에서 출품한 ‘노한 청명주’가 약·청주 부문에서 대상을 차지했고, 순창 친구들의 술 지란지교의 ‘지란지교 프리미엄 탁주’는 고도발효주 부문에서 우수상을 수상하며 전북쌀의 뛰어난 품질과 가능성을 다시 한번 확인시켰다.

/오상근 기자

전북농관원, 전국 첫 국산 콩 매입검사 도입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북지원이 지난 1일 김제농협과 김제원예농협에서 전국 최초로 2025년산 국산 두류 정부부족 매입검사에 착수했다.

올해 전북특별자치도에서 약정 체결된 두류 물량은 총 3만,027톤으로 이는 전국 물량 6만455톤의 절반을 넘는 51.7%에 해당한다. 세부적으로는 콩 3만,019톤, 콩나물콩 5톤, 팥 3톤이 포함됐다.

올해 매입검사에서는 주요 변화도 눈에 띈다. 전북지역에서 중점적으로

재배되는 논콩 품종 ‘선유2호’가 새롭게 품종구분 매입 대상에 포함됐으며, 출하 농가는 2025년산 국산 콩임을 입증하는 원산지 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매입대상은 약정 물량 중 사전 품질 조사에서 안전성 검사와 품종순도 검사(해당 품목)에 모두 적합 판정을 받은 물량이다.

품위검사를 받기 위해서는 수분 함량을 14% 이내로 낮추고 규격 포장재(1,000kg·40kg·20kg)에 담아 출하해

야 한다.

매입가격은 지난해와 동일하게 콩의 굵기(대립·중립·소립)와 등급(특·1·2·3·등외)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다만, 그간 품종구분 매입 시 지급되던 ‘품종구분 관리 노력비’는 올해부터 폐지됐다.

전북농관원은 내년 3월 31일까지 도내 13개 시·군 88개 생산단체를 대상으로 순차적으로 검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오상근 기자



신협중앙회 전북지역본부는 전북신협 두손모아봉사단과 프로축구 K리그 전북현대모터스FC(전북현대)가 제2회 평생어부바 사랑의 골 캠페인을 통해 조성한 후원금 1,920만 원을 전달했다

지역 상생 사회공헌 파트너십 강화

전북신협-전북현대, ‘평생어부바 사랑의 골’ 후원금 전달

신협중앙회 전북지역본부는 전북신협 두손모아봉사단과 프로축구 K리그 전북현대모터스FC(전북현대)가 ‘제2회 평생어부바 사랑의 골’ 캠페인을 통해 조성한 후원금 1,920만 원을 전달했다고 2일 밝혔다.

전북신협과 전북현대는 지난 2월 2025시즌 K리그 개막전에 맞춰 ‘공동홍보 스폰서십 및 제2회 평생어부바 사랑의 골’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평생어부바 사랑의 골’은 소외계층을 돕기 위한 사회공헌 프로젝트로, 전북현대가 정해진 경기에서 골을 넣을 때마다 30만 원씩을 적립해 연말 김장나눔 봉사 재원으로 활용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날 전달식에는 최태일 신협 전북지역협의회회장, 황민석 두손모아봉사단장, 강연수 본부장, 전북현대 이도현 단장을 비롯해 양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전북현대는 전북신협의 지속적인 지원에 감사사를 표하며 감사패를 전달했고, 이어 올해 적립된 후원금 전달식도 함께 진행됐다.

전북현대는 11월 30일 서울월드컵경기장 최정현을 끝으로 시즌 64득점을 기록했고, 이에 따라 올해 적립금은 총 1,920만 원이 확정됐다. 전북신협 두손모아봉사단은 지난해 모금액 1,350만 원을 포함해 누적 3,270만 원을 연말 봉사활동에 사용할 예정이다.

/오상근 기자

건설기술 기업 실증·사업화 지원 손잡았다

전북개발공사·테크노파크, 협약 체결

전북 지역 건설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와 신기술의 상용화를 위해 공공기관이 협력의 폭을 넓힌다.

전북개발공사와 전북테크노파크는 3일 ‘지역 건설산업분야 기술개발기업 실증 및 사업화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기술기업 성장 지원을 위한 공동 행보에 나섰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보유한 자원과 역량을 연계해 기술창업·벤처기업의 실증 테스트부터 사업화까지 전주기적 지원체계를 마련하기로 뜻을 모았다. 협약사에는 △지역 기술개발기업의 실증사업 발굴 및 추진 △실증사업 참여기업 모집·선정 협력 △기술 실증성과 홍보 및 확산 등 다각적인 협력 방안이 담겼다.

전북개발공사는 실증사업을 뒷받침할 수 있는 부지 및 시설 제공, 현장 사용 지원 등을 맡아 실증 환경 구축의 핵심 역할을 수행한다. 이에 더해



전북테크노파크는 실증 대상 기업 및 기술 발굴, 공모 운영 등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기반 마련에 주력할 예정이다.

양 기관은 이번 협력이 지역 기술기업이 개발한 건설기술을 실제 현장에서 검증하고, 이를 상용화로 연결하는 촉매제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실증 과정을 안정적으로 거친 기업은 시장 진입 속도가 한층 빨라지고, 이는 전북 건설산업 전반의 경쟁력 제고로 이어질 전망이다.

/오상근 기자

전주매일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착한신고

"신고하는 당신이 영웅입니다"

아동학대 범죄를 알거나 의심만 되어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지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이나 학대행위자의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도 신고는 가능하며, 가능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전화: 국번없이 112
방문: 관할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 행동적징후

- 어른과의 접촉회피
- 다른 아동이 울 때 공포를 나타냄
-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극단적 행동
- 부모에 대한 두려움
- 집에 가는 것을 두려워함
- 위험에 대한 지속적 경계